

지도자 중의 지도자 돼라



공영일 법인이사장

공영하는 인류의 공동체 사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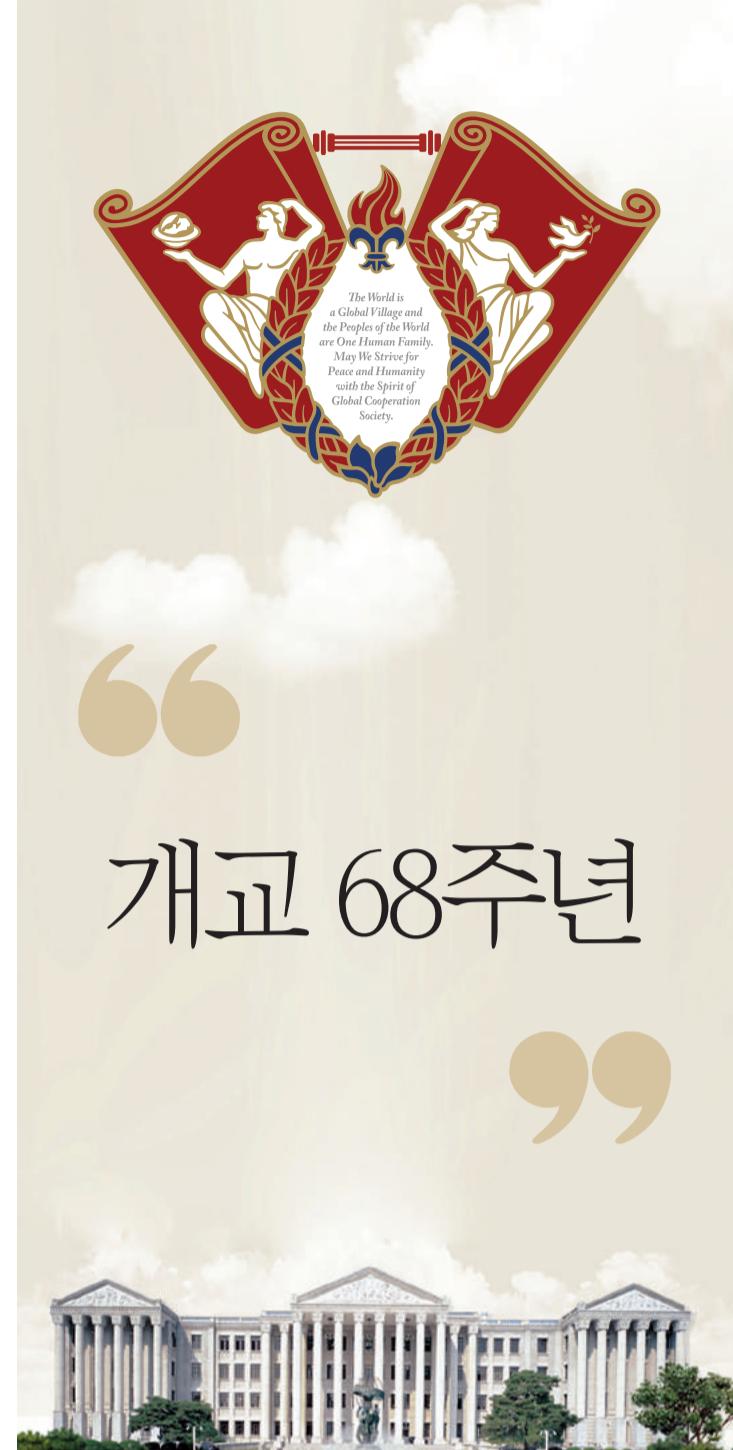
설립자께서는 우리 경희인들이 지도자 중의 지도자가 되어 인류 사회를 이 위대한 인간의 문화세계, 인류의 공동체 사회로 이끌어 가는 길잡이가 되어 주길 간절히 소망하였습니다.

인간의 길, 인류의 길을 찾아 나선지 어언 68년, 이제 경희가 가는 길은 세계인이 함께하는 오토피아 문명의 대로가 되었으며, 경희는 사학의 명문으로 우뚝 섰습니다. 경희가 이룩한 지난날의 빛나는 성취는 경희의 자랑이며 경희인의 자부심입니다.

이제 경희는 그동안의 성취를 '학문과 평화'의 역사와 전통으로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한국과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 명문 사학으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21세기 문명전환의 격류를 맞아 기후문제, 불평등, 폭력, 난민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지구 의제에 대해 학문적, 실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희의 이 새로운 도전은 21세기 '대학다운 미래대학'이라는 경희 역사의 새 지평을 열리라 확신합니다.

경희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경희와 경희인의 빛나는 성취를 축하하면서, 2017년 개교기념일을 맞은 경희의 일단을 말씀드렸습니다.

개교 68주년을 경희인 모두와 함께 경축하는 바입니다.



※ 교수의회의 경우 사정에 의해 기념칼럼을 보내오지 못했기에 알려드립니다. 각 필자의 글은 본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성원이 배제된 비민주적 대학 운영, 68주년엔 끊어냅시다

권예하 서울캠퍸스 총학생회
(언론정보학 2010) 회장

쿨, 약속과 다른 공사로 인한 운동장 문제 등. 이러한 문제들의 중심에는 <소통이 아닌 통보>, <논의 없는 TF운영>, <상명하달식의 정책추진>이라는 우리대학의 비민주적 운영이 있습니다.

대학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구성원들이 모르게, 의견 수렴 없이 본부의 의지만으로 정책들이 추진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일들이 본부의 보고체계 속에 서만 논의되고, 학생들에게는 최종결정만 통보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원인은 반발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 본부와 학생의 입장 차이일 수도 있으며, 구성원들이 배제된 행정 구조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대학에 대한 구성원 간 인식의 괴리는 더욱 커질 것이고 이는 우리대학의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행동하는 주인의식은 경희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소중한 가치 중 하나입니다. 학생 역시 주인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요구와 필요를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경희를 위해 학내 민주주의를 다시 만들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총학생회도 그 과정에 필요한 모든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본부가 자랑스러운 경희를 이야기 하는 동안 학생들은 학교의 퇴행을 목격하는 듯합니다. 수강신청 대기순번제의 일방적 도입, 유학생 등록금 인상, 재수강제도 개편, 어떠한 설명도 없이 행정처로부터 완료된 미래창조

유학생은 ATM이 아니다

허문천 총유학생회
(조리·서비스경영학 2015) 회장

지난해 말 교육부가 '정원 외 유학생 등록금에 한해 등록금 상한 제 적용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발표하면서 유학생의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게 만들었다.

우리학교는 전년대비 7% 인상으로 서울권 대학 중에서 인상 폐센트가 제일 높았다. 반대의 목소리를 냈지만 학교 측은 등록금 인상을 진행하였다. 인상 후 마련하겠단 프로그램과 복지 정책은 하나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

유학생들을 차별하는 태도는 기숙사에서도 나타난다. 세화원 기숙사는 내국인 학생은 한 학기 약 80만원, 유학생은 약 100만원이다. 더 많은 기숙사 비를 내지만 제공되는 서비스는 똑같다.

결국 학교는 유학생을 ATM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예산을 유학생들한테서 뽑으면 되기 때문이다.

매년 유학생 수는 증가되지만 이

에 대응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은 없고 유학생들의 중도 포기율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경희대학교의 입학 기준은 다른 서울권 대학에 비해 낮아서 중도 포기율은 더욱 높다. 학교 측은 몇 년째 해결해야지라는 말만 할 뿐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어느 유학생은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학생 정책을 바꿔야 한다. 인상된 등록금을 유학생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 장학금과 한국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하여야 한다. 학생 수보다 질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유학생들을 마구잡이로 유치하면 수준 미달의 학생들이 입학을 하고 중도에 포기를하게 된다. 이는 경희대학교를 유학생 중도 포기율이 높은 대학으로 만드는 길이다. 유학생 등록금이 아닌 입학 시 한국어능력시험 기준을 인상해야 한다.

유학생들은 꿈과 미래를 위해 유학을 선택했고 그 꿈을 이를 기회와 지식을 경희대학교라는 명문대학에서 얻으려 하였지만 결국 학교 측에서 준 것은 차별이다. 유학생은 학교 측이 마음대로 뽑아 쓸 수 있는 ATM이 아니다. 우리학교의 미래를 위해 학교 측의 빼는 대책이 필요하다.

노동이사제를 꿈꾼다



김종현 노동조합 위원장

할을 뒷받침하는 것이 행정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시작한다.

대학의 역사를 행정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 '지시와 이행', '책임과 권한'이 철저하게 이분화돼 있던 시절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조직의 구조가 결과적으로 대학 발전에 필요했던 시기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대학이 최근 각종 정책 배경에서 거론하는 '4차 산업혁명'과 같이 압도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시기에서는 좀 더 다른 방식의 '행정'이 필요해 보인다.

대학 당국이 지시하고 교직원은 무조건 따르는, 권한은 대학만이 가지고 교직원은 책임만 지는 경직된 구조는 높은 수준의 유연성과 창의력을 요하게 될 변화의 끝자락이라도 과연 따라잡을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다시 노동이사제다.

노동이사제에서 기대하는 것은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인 배분이다. 또, 합리적인 권한과 책임은 유연성과 창의력을 이끌어내는 아주 최소한의 전제조건일 것이다.

우리대학은 68주년을 넘어 70주년을 바라보고 있다. 이제 70년에 걸맞는 아주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는가. 다른 대학에 앞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멋진 대학이 되길 기대한다.

68주년? 당연히 축하한다.

경희의 역사와 미래

진도원 국제캠퍸스 총학생회
(스페인어학 2011) 회장

에 선정돼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가르침과 함께 문·이과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토대도 마련됐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체육대학인 모교 체육대학의 발전에 이바지 할 국제캠퍼스 종합체육관 완공과 함께 학생들 간의 소통을 촉진 시킬 수 있는 '미래창조스쿨', 학교와 기업의 연계 강화를 목적으로 한 '산학협력관'의 신설은 경희대학교가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경희대학교의 68년간의 발전에는 앞에서 이끌어 주신 수많은 원로 교수님과 동문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모든 모교 재학생들을 대신해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훌륭한 교수진과 교직원 여러분, 정·재계를 비롯한 여러분, 정·재계를 비롯한 여러분에서 빛을 밝히고 계신 선배들, 그리고 함께 학내에서 공부하고 있는 재학생들의 노력과 화합의 시너지로 경희대학교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발전을 이루리라 믿습니다. 더불어 동문들과 재학생 간의 교류강화, 모교와 학생이 함께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소통 증진과 더불어 저희 국제캠퍼스 제49대 총학생회는 경희대학교의 한 단계 더 높은 품격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